



[뉴스] 실업급여 지급 감소
음식·숙박업 등
고용충격 여전
02



Economy

코스피 2916.38 (-39.92)	코스닥 940.15 (-12.96)
금리 (미국 3년) 1.703 (+0.002)	환율 (원-달러) 1198.80 (+4.20) (12일)

‘급이 다른 초격차’ 삼성전자, 최선단 14나노 D램 양산

높은 수율, 성능으로 경쟁력 높여 같은 제품이라도 기술적으로 우월

EUV 공정 통해 미세 한계 극복 공정 단축으로 생산성도 극대화 단일칩 최대 24Gb D램 양산 가능 새로운 규격 DDR5 보급도 앞장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계에서 다시 초격차에 돌입한다. 드디어 최첨단 D램 양산을 시작하며 ‘진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 높은 수율과 성능으로 경쟁력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 차세대 제품 양산에서는 더 앞서갈 기반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12일 14나노 D램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4나노 D램은 4세대 10나노(1a) D램으로 불리던 제품이다. 올 초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으며, SK하이닉스도 지난 7월부터 양산

중이다.

삼성전자가 D램에서 이례적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뒤늦게서야 양산에 돌입한 것 역시 더 많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전언이다.

일단 삼성전자는 14나노 D램 양산에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했다. 마이크론은 구세대 공정인 불화아르곤(ArF)으로 1a D램을 양산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1세대 10나노(1x)에 EUV를 시험 적용, 3세대 10나노(1z) D램에 EUV를 전면 적용하면서 수율과 안정성을 대폭 높이고 차세대 양산 노하우까지 축적해왔다.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5개 레이어에 EUV로 회로를 새기는 ‘EUV 멀티레이어’ 공정도 적용했다. 공정을 더 단축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수율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며 웨이퍼 집적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생산성이 이전 세대보다 약 20% 높아졌다는 설명. 삼성전자는 웨이퍼를 거의 전부 활용하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율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7년 만에 80달러 돌파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인 8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원유는 전장보다 1.5% 오른 배럴당 80.52달러(963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77.62달러로 세웠던 7년 만의 최고가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한 것이다. 80달러선을 돌파한 것도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시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인 8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원유는 전장보다 1.5% 오른 배럴당 80.52달러(963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77.62달러로 세웠던 7년 만의 최고가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한 것이다. 80달러선을 돌파한 것도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시스

성능면에서도 경쟁사 제품을 훨씬 앞섰다고 전해졌다. EUV 공정으로 선폭을 훨씬 미세하게 가다듬었을 뿐 아니라 여러 기술을 새로 적용하며 속도와 안정성 등을 높였다는 것. 특히 회로 깊이를 대폭 늘리면서 단일칩 최대 용량인 24Gb D램 양산까지 가능해졌다.

새로운 규격인 DDR5 보급에도 앞장선다. 14나노 D램은 가장 먼저 DDR5 D램을 양산하는데 사용된다. EUV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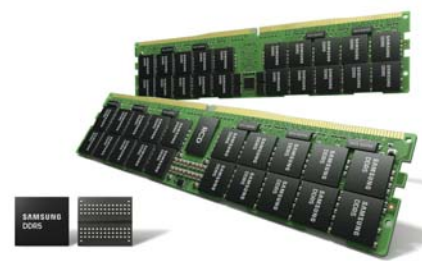
정 기술력과 차별화된 성능, 안정적인 수율로 DDR5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DDR5는 최고 7.2Gbps 속도로 DDR4 대비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제품군이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고용량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램개발실장 이주영 전무는 “삼성전자는 지난 30

년간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해 왔으며, 이번에도 가장 먼저 멀티레이어에 EUV 공정을 적용해 업계 최선단의 14나노 공정을 구현했다”며, “고용량, 고성능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5G·AI·메타버스 등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최고의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14나노 D램

/삼성전자

LG전자, 3분기 매출 19조 육박 ‘역대 최대’ 기준금리 동결... 내달 인상 유력

GM볼트 리콜 따른 총당금에 영업익은 전년동기비 반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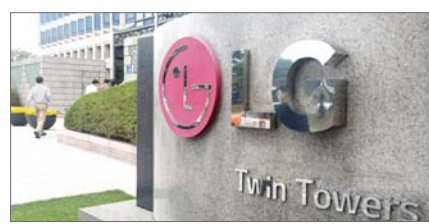
LG전자가 견조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GM 볼트 리콜에 따른 총당금으로 이른 서리를 맞았다.

LG전자는 3분기 매출액 18조 7845억원에 영업이익 5407억원을 거뒀다고 12일 잠정 공시했다.

이번 매출은 분기 기준 매출로는 역대 최대다. 전년 동기보다도 22%나 늘었다. 전기(17조 1139억원)보다도 9.8% 더 매출을 늘리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전자가 코로나 19 이후 생활가전(H&A)과 홈엔터테인먼트(HE)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선전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LG전자는 오브제 컬렉션 인기와 ‘트루 스타일’을 앞세운 청정 가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뉴스시스

등으로 상반기 미국 월권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거듭난 바 있다. 올레드 TV도 올림픽 특수와 함께 수율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화 등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영업이익이다. 3분기에 54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6%나 쪼그라들었다. 전분기(8781억원)보다도 38.4%나 줄었다.

미국이 GM 볼트에 리콜 조치를 내리면서 총당금을 반영한 영향이다. 이번 분기 총당금은 약 4800억원으로, 전분기에 반영한 총당금의 2배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GM은 2019년 이후 생산한 볼트 EV와 볼트 EUV 7만 3000대를 추가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와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드는 배터리 셀이나 팩 등 모듈 결합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추징금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장사업 흑자 전환도 묘연하게 됐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줌쳐럼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만 총당금은 앞으로 이만큼 과다하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사가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피해액을 총 1조 4000억원 규모로 잠정 확정하면서다. LG전자가 그동안 이미 절반 이상을 부담한 셈, 또 LG전자가 지난해 배터리팩 사업을 LG화학으로 이관하면서 이후 생산 제품과는 무관하다.

/김재용기자

한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려 ‘다음 금통위서 추가 인상’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지만 오는 11월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한 차례 숨을 골랐지만 연내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경기회복 흐름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지 짚어볼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담회에서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 셈이다. 한은은 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난 8월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한 바 있다. 연내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연 1%대에 다시 진입하면서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3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일상회복 마지막 관문” /사진 뉴스시스
▲ 국민의힘,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혐의로 고발

▲ 윤석열 ‘2030’·홍준표 ‘영남’... 지지 확보 총력
▲ 국힘, 대장동 특검 사찰... 이낙연 교감 시도



▲ 민주당, 이재명 ‘엄호 모드’ 돌입... 반격 본격화
▲ 전현희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신고 시 조사할 것” /사진 뉴스시스